

#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지각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

## Effects of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Social Competence

한준아\*·김지현

수원과학대학교 아동보육과·한양사이버대학교 아동학과

Han, Jun Ah · Kim, Ji hyun

Dept. of Child Edu-Care, Suwon Science College

Dept. of Child Studies and Education, Hanyang Cyber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explore the gender differences in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and to investigate differences between boys and girls in the interrelationships between these kinds of variables. The participants were 214 children in 4 to 6 grades and their teachers from one elementary school in Seoul.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Pearson's correlations, and multiple regression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in the children's social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negative emotion explained boys' and girls' peer social skills, frustration tolerance, and task orientation. Children's positive emotion regulation explained boys' and girls' peer social skills, assertive social skills, and task orientation. Boys, who perceived less maternal supervision, displayed less assertive social skills and task orientation.

Keywords: social competence, emotional regulation,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 I. 서론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집단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대인관계에서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행동을 보이는 아동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아동의 문제는 집단 따돌림, 학교 폭력,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적 현상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동이 사회적 집단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성원으로서 잘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기르

는 것이 요구된다. 사회적 유능성은 구체화된 사회적 맥락에서 얻고자 하는 사회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획득하는 능력을 의미하는데(Dodge *et al.*, 1985), Waters와 Sroufe(1983)는 사회적 유능성이란 사회적 요구에 적응적으로 반응하고 융통성 있게 조화를 이루며 환경 안에서 주어지는 기회를 일반화하고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자신이 속한 사회적 환경에서 잘 적응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하며, 학교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하게 행동하는 것은 학령기 아동의 건강한

\* Corresponding Author: Han, Jun Ah  
Tel: 031-350-2446  
Email: jahan@ssc.ac.kr

자아 발달과 사회 정서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Chung, 2002). 특히 학령기는 발달 단계상 또래와의 상호작용이 활발해지고, 학령기에 형성된 사회적 유능성은 이후 발달 시기인 청년기 및 성인기의 사회적 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가 되므로(Hartup, 1991; Parker & Asher, 1987; Pettit *et al.*, 1988),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하는데 도움이 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매우 필요한 현실이다.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은 사회적 유능감을 나타낸 연구 결과(Chung, 2002; Hightower *et al.*, 1986), 남아와 여아 간에 사회적 유능감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연구 결과(Lee, 2008) 등 다양한 보고를 하고 있다. 이처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성차는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다른 변인과의 관계를 살펴 볼 경우에는 아동의 성을 고려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특성이나 외부 환경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동의 개인적 특성인 정서 조절 능력, 즉 아동이 긍정적, 부정적인 감정 수준이 높아졌을 때 사회적 맥락에 맞게 자신의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Chung & Chung, 2007; Han, 2004; Kim & Kwon, 2010; Kopp, 1989). 정서 조절 능력은 아동이 필요한 경우 자신의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Coie *et al.*, 1994). 실제로 아동은 일상 생활에서 다양한 정서적 경험을 하게 되며, 자신의 정서를 조절해야 할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아동이 주어진 상황에서 정서를 효율적으로 조절하는 능력은 사회적 준거와 맥락에 맞게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 기능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학령기 아동은 적절한 정서 표현에 대한 이해가 발달하고, 유아기 시기 아동에 비해 정서 조절에 대한 사회화 압력이 증가하므로(Saarni, 1997), 정서를 이해하며 조절하는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유지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정서 조절 능력이 뛰어난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Gottman & Mettatal, 1986). 또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규칙을 잘 지키고, 자신의 욕구와 다른 아동의 욕구 사이에서 조화를 유지하는 정서 조절 능력을 보

였으며(Putallaz & Sheppard, 1992), 충동을 억제하고 정서를 잘 조절하는 능력은 또래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Hwang, 1999). 반면에 정서 조절에 어려움을 지닌 아동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대인 관계에서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립적인 행동을 많이 나타냈다(Selman & Demorest, 1984). 이러한 정서 조절 능력에 대한 아동의 성차 연구를 살펴보면,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 조절 능력이 우수하다고 보고한 연구(Han, 2004; Kochanska & Coy, 2002; Lim & Lee, 2010), 성별에 따라 정서 조절 능력에 차이가 없다는 연구(Dadds *et al.*, 1999) 등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아동의 성을 구분하여 정서 조절 능력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한편, 환경 요인 중 가정은 아동이 최초로 접하는 사회적 맥락으로 부모의 영향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친다(Cohn *et al.*, 1991). Baumrind(1973)는 부모가 온정성을 가지고 적절한 통제를 하는 경우 자녀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고 보고하였다. 즉 민주적인 부모의 자녀는 집단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래 집단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에서 편안하고 유능한 경향이 나타났다. 사회화 과정을 통해서 발달하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은 기본적으로 양육자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주로 영향을 받으며, 특히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행동과 심리적인 적응 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Baumrind, 1973; Maccoby & Martin, 1983). Belskey(1984)는 어머니의 합리적 지도, 일관성 있는 훈육, 애정적 태도 등이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높여준다고 보고하면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Lee *et al.*(2007)은 어머니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학령기 아동일수록 사회적 유능성이 발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발달과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이다(Rohner *et al.*, 2005). 선행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Fristod와 Karpowitz(1988)의 연구에 따르면, 어머니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수용적이고 온정적으로 대하며, 덜 엄격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Kuczynski(1984)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여아보다 남아에게 더 지시적이고, 혼을 내는 등 힘에 의존한 훈육 방식을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한편, Park *et al.*(2002)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온정·수용 양육 행동에서는 아동의 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여아보

다 남아에게 거부-제재 양육 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와 같이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의 성에 따라 비일관적인 결과를 보고하고 있으며, 아동의 성을 구분하여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영향력을 연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에 관심을 갖고,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정서 조절 능력, 어머니 양육 행동의 영향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위해, 아동의 성을 구별하여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이 이들 변인에 의해 어떻게 설명되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관련 변인들의 관계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고,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 도움이 되는 보호 변인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아동의 성에 따라 차별화되고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1.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 조절 능력,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관계는 어떠한가?
3.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상대적 영향력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 지역의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4-6학년 아동 214명과 해당 학급의 담임 교사 8명이었다. 연구 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1곳을 임의 표집한 후 4~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를 실시하였으며, 해당 학급 교사가 아동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였다.

이 시기의 아동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한 이유는 아동기는 사회적 유능성 발달의 민감기로서(Katz & McClellan, 1997), 학령기 후기 아동들은 자신들의 감정을 표현하며, 자신의 생각을 질문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대상 아동을 성별과 학년별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은 남아 105명(49.1%), 여아 109명(50.9%)으로 여아가 남아에 비해 다소 많았으며, 4학년 27명(남아 13명, 여아 14), 5학년 131명(남아 65명, 여아 66명), 6학년 56명(남아 27명, 여아 29명)으로 5학년이 61.2%, 6학년이 26.1%, 4학년이 12.7%로 5학년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 2. 측정 도구

#### 1)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Teacher-Child Rating Scale(T-CRS: Hightower *et al.*, 1986)을 Chung(2002)이 한국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한국관 교사용-아동 평정척도’ 중 사회적 유능성에 해당하는 20문항을 사용하였다.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에는 ‘또래관계 기술’(5문항), ‘자기 주장적 기술’(5문항), ‘좌절 인내’(5문항), ‘과제 지향’(5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또래관계 기술’은 또래간의 관계, 인기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며, ‘자기 주장적 기술’은 학교에서의 리더쉽, 또래

<Table 1>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Boys	Girls	Total
4th grade	13	14	27
5th grade	65	66	131
6th grade	27	29	56
Total	105	109	214

압력 속에서의 자신의 입장 고수, 수업 시간의 적극적 참여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며, '좌절 인내'는 좌절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며, '과제 지향'은 주어진 과제 완수, 학업 수행 능력에 관련된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평정하는 대상을 교사로 선정하였는데, 이는 교사는 학교에서 아동을 장시간에 걸쳐 관찰할 수 있고 각각의 아동을 다른 아동과 비교하여 평가할 수 있으므로 아동의 행동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Kamphaus & Frick, 1996). 교사는 아동이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에 부합하는 정도를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각 하위 영역별로 5점~20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위 영역에 대한 아동의 학교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 영역별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또래관계 기술이 .87, 자기 주장적 기술이 .87, 좌절 인내가 .80, 과제 지향이 .85로 나타났다.

## 2)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척도는 Shields와 Cicchetti(1997)가 개발한 교사 및 부모용 정서 조절 체크리스트(Emotion Regulation Checklist: ERC)를 예비조사를 통해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정적 정서성'(15문항)과 '조절'(8문항)로 2가지 하위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총 2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적 정서성'은 역기능적 정서 조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기분의 불안정, 분노 반응성,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문항이다. '조절'은 기능적 정서 조절을 의미하며 상황적으로 적합한 정서 표현, 공감을 나타내는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사는 아동이 각 문항에 나타난 특성을 보이는지를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였으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부정적 정서성'이 15점~60점, '조절'이 8점~32점이다. '부정적 정서성'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및 공격 유발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 변화에 따라 정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함을 의미하며, '조절' 요인의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계수 Cronbach  $\alpha$ 는 부정적 정서성이 .90, 조절이 .77이었다.

## 3) 어머니 양육 행동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Han(2008)이 개발한 '부모 양육 행동' 척도로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온정'(9문항)과 '관리·감독'(6문항)의 2개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며, '온정'은 부모가 아동에게 애정과 관심을 보이기, 아동에 대한 수용, 필요한 도움 제공하기, 자율성에 대한 격려 등과 같은 애정적이고 따뜻한 행동을 의미하며, '관리·감독'은 부모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 행동을 의미한다. 각 문항에 대하여 아동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거의 그렇다(4점)'까지의 4점 척도로 평정하며, 가능한 점수의 범위는 '온정'이 9점~36점, '관리·감독'이 6점~24점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어머니의 온정과 관리·감독 양육 행동이 많다고 아동이 지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하위 차원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alpha$ 는 '온정'이 .85, '관리·감독'이 .72이었다.

## 3. 연구 절차

본 조사는 2010년 2월에 서울시에서 중류층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노원구에 위치한 초등학교 중 1곳을 임의 표집한 후 4~6학년 아동과 4학년 1학급, 5학년 5학급, 6학년 2학급의 담임 교사 8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어머니 양육 행동을 측정하기 위한 아동용 질문지는 연구자가 각 학급을 방문하여 실시하였으며, 아동이 질문지 응답에 소요한 시간은 평균 10분이었다.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과 정서 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후 해당 학급 교사에게 전달하였으며, 해당 학급 교사에게 평정 척도 실시상의 유의점을 주지시킨 후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교사용 질문지는 아동용 질문지를 실시한 1주일 후 본 연구자가 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수거하였다. 총 280부의 질문지를 배부하였으나 회수된 것은 245부였고, 회수된 질문지 중 응답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응답이 누락된 경우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214부의 질문지를 자료 분석에 사용하였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윈도우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기술적인 경향을 알아보기로 각 측정 변인 별로 평균과 표준

편차를 산출하였다. 둘째,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 조절 능력, 어머니 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측정 변인들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아동의 성에 따라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다. 넷째, 남녀 아동 별로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규명하기 위해,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어머니 양육 행동을 포함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Ⅲ. 연구 결과

#### 1. 아동의 성에 따른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의 차이

아동의 성별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 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제시하였다. 먼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살펴보면, 아동의 성에 따라 사회적 유능성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또래관계 기술’( $t=-3.12, p < .01$ ), ‘좌

절 안내’( $t=-3.96, p < .001$ ), ‘과제 지향’( $t=-6.76, p < .001$ )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아동의 성에 따라 ‘자기 주장성 기술’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은 차이가 없었다. 즉 여아는 남아보다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극복하며 잘 참아내며, 지루하거나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을성을 가지고 인내한다고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서 조절 능력에 있어서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부정적 정서성( $t=5.26, p < .001$ ), 조절( $t=-2.67, p < .01$ )에서 모두 성차가 나타났다. 즉 학교 상황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부정적 정서성을 더 많이 표출하며, 여아가 남아보다 정서 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의 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온정적 양육 행동( $t=-2.48, p < .05$ )에서 성차가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Table 2> Means, Standard Deviation, and t-values of Variables by Children's Gender

(N=214)

Variables	Boys (n=105)	Girls (n=109)	Total (N=214)	<i>t</i>	
	<i>M</i> ( <i>SD</i> )	<i>M</i> ( <i>SD</i> )	<i>M</i> ( <i>SD</i> )		
Social Competence	Peer Social Skills	13.2(2.5)	14.2(2.1)	13.8(2.4)	-3.12**
	Assertive Social Skills	12.6(3.2)	13.0(2.9)	12.8(3.1)	-0.88
	Frustration Tolerance	13.5(1.9)	14.4(1.5)	14.0(1.8)	-3.96***
	Task Orientation	12.2(3.2)	15.1(3.0)	13.7(3.4)	-6.76***
Emotion Regulation	Negativity	31.7(5.5)	28.0(4.6)	29.8(5.3)	5.26***
	Regulation	22.4(2.5)	23.4(2.9)	22.9(2.8)	-2.67**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Warmth	23.9(6.7)	26.1(6.5)	25.0(6.7)	-2.48*
	Supervision	13.7(4.2)	14.8(4.3)	14.3(4.3)	-1.85

\*  $p < .05$ , \*\*  $p < .01$ , \*\*\*  $p < .001$

## 2.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관계

### 1)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관계

종속 변인인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독립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로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 관계 기술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r=-.36, p<.001$ )과 부적 상관을, 조절( $r=.47,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또래 관계 기술이 유능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기주장성 기술의 경우, 조절( $r=.69, p<.001$ ), 관리·감독( $r=.23, p<.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남아가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가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자기 주장성 기술이 유능함을 의미한다. 한편 좌절 인내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r=-.79, p<.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남아가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좌절 상황에 대한 인내심이 강함을 의미한다. 과제 지향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r=-.25, p<.05$ )과 부적 상관을, 조절( $r=.43, p<.001$ ), 온정( $r=.27, p<.01$ ), 관리·감독( $r=.27,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남아

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정서적 조절을 많이 할수록, 그리고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과제 지향적인 사회적 유능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2)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관계

종속 변인인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과 독립 변인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적률상관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로 상관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또래 관계 기술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r=-.22, p<.05$ )과 부적 상관을, 조절( $r=.56,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또래 관계 기술이 유능함을 의미한다. 자기주장성 기술의 경우, 조절( $r=.58, p<.0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아가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자기 주장성 기술이 유능함을 의미한다. 좌절 인내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r=-.53, p<.001$ )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관리·감독( $r=.19, p<.05$ )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아가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어머니가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좌절에 대한 인내심이 강함을

<Table 3> Correlation among Boy's Social Competence,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N=105)

	1	2	3	4	5	6	7	8
1	1.00							
2	-.01	1.00						
3	-.11	.09	1.00					
4	-.06	.01	.47***	1.00				
5	-.36***	.47***	.03	-.02	1.00			
6	.11	.69***	.11	.23*	.48***	1.00		
7	-.79***	.13	.08	.07	.50***	.04	1.00	
8	-.25**	.43***	.27**	.27**	.40***	.57***	.31**	1.00

\*  $p<.05$ , \*\*  $p<.01$ , \*\*\*  $p<.001$

1. Negativity, 2. Regulation, 3. Warmth, 4. Supervision, 5. Peer Social Skills, 6. Assertive Social Skills, 7. Frustration Tolerance, 8. Task Orientation.

나타낸다. 과제 지향의 경우, 부정적 정서성( $r=-.42, p<.001$ )과 부적 상관을, 조절( $r=.29, p<.01$ )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여아의 경우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정서적 조절을 많이 할수록 과제 지향적인 사회적 유능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 3.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영향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1)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영향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독립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에 제시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온정’과 ‘관리·감독’의 상관이  $r=.47(p<.001)$ 로 다소 높았으나,  $r=.70$  이하까지는 중다회귀분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기초하여 (Hair *et al.*, 2009), 위의 변인들을 포함시켜 분석하였

다. 또한 회귀 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또래관계 기술’의 경우는 1.864, ‘자기주장성 기술’의 경우는 2.097, ‘좌절 인내’의 경우는 1.969, ‘과제 지향’은 1.976으로 2에 근접하고 있었고, 잔차 간에 자기 상관이 없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에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남아의 ‘또래 관계 기술’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남아의 또래 관계 기술 변량의 35%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조절( $\beta=.47$ ), 부정적 정서성( $\beta=-.36$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남아가 또래 관계 기술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남아의 ‘자기 주장성 기술’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남아의 자기 주장성 기술 변량의 54%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 $\beta=.21$ ), 조절( $\beta=.68$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아동이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남아가 자기 주장성 기술을 많이 보인다고

<Table 4> Correlation among Girl's Social Competence, Emotion Regulation, and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N=109)

	1	2	3	4	5	6	7	8
1	1.00							
2	.04	1.00						
3	-.03	.04	1.00					
4	-.03	-.02	.50***	1.00				
5	-.22*	.56***	.16	.15	1.00			
6	.16	.58***	.11	.10	.49***	1.00		
7	-.53***	.01	.14	.19*	.43***	.14	1.00	
8	-.42***	.29**	.08	.06	.39***	.46***	.42***	1.00

\* $p<.05$ , \*\* $p<.01$ , \*\*\* $p<.001$

1. Negativity, 2. Regulation, 3. Warmth, 4. Supervision, 5. Peer Social Skills, 6. Assertive Social Skills, 7. Frustration Tolerance, 8. Task Orientation.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남아의 '좌절 인내'를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남아의 좌절 인내 변량의 64%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부정적 정서성( $\beta=-.79$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남아가 좌절 인내 행동을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음을 의미한다.

남아의 '과제 지향'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남아의 과제 지향 변량의 32%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조절( $\beta=.42$ ), 부정적 정서성( $\beta=-.22$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남아가 자기 주장성 기술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 2)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 양육 행동의 관계

한편,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 독립 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을 점검하기 위해 변인간 상호 상관 계수를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이 중 어머니의 양육 행동 중 '온정'과 '관라 감독'의 상관이  $r=.50(p<.001)$ 으로 다소 높았으나,  $r=.70$ 이하까지는 중다회귀분석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기초하여(Hair *et al.*, 2009), 위의 변인들을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또한 회귀가정의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

해Durbin-Watson 계수를 산출한 결과, '또래관계 기술'의 경우는 1.949, '자기주장성 기술'의 경우는 1.936, '좌절 인내'의 경우는 1.855, '과제 지향'은 2.032으로 2에 근접하고 있었고 잔차 간에 자기 상관 없이 회귀 모형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을 설명하는 변인을 추출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여아의 '또래 관계 기술'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여아의 또래 관계 기술 변량의 40%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조절( $\beta=.56$ ), 부정적 정서성( $\beta=-.23$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또래 관계 기술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여아의 '자기 주장성 기술'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여아의 자기 주장성 기술 변량의 37%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조절( $\beta=.58$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아가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자기 주장성 기술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여아의 '좌절 인내'를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여아의 좌절 인내 변량의 32%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부정적 정서성( $\beta=-.53$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좌절 인내 행동을 많이 보인

(Table 5) Multiple Regressions of Boy's Social Competence

(N=105)

Variables	Peer Social Skills	Assertive Social Skills	Frustration Tolerance	Task Orientation
	$\beta$	$\beta$	$\beta$	$\beta$
Negativity	-.36***	.13	-.79***	-.22**
Regulation	.47***	.68***	.13	.42***
Warmth	-.03	.05	-.04	.12
Supervision	-.03	.21**	.04	.19*
$R^2$	.35	.54	.64	.32
$F$	13.39***	28.97***	44.12***	11.75***

\*  $p<.05$ , \*\*  $p<.01$ , \*\*\*  $p<.001$

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여아의 ‘과제 지향’을 종속 변인으로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투입된 독립 변인들은 여아의 과제 지향 변량의 28%를 설명하였으며, 투입된 변인 중 조절 ( $\beta=.31$ ), 부정적 정서성( $\beta=-.43$ )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이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자기 주장성 기술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음을 의미한다.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아동의 성에 따라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또한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아동의 성을 구분하여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아서 사회적 유능성의 보호 요인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연구 문제 중심으로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 관계 기술, 좌절 인내, 과제 지향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이는 여아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며, 여이는 남아보다 정서 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리고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가 남아보다 또래 관계 기술, 좌절 인내, 과제 지향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이는 남아보다 또래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며, 일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좌절스러운 상황에서 잘 참아내며, 지루하거나 해야 할 과제에 대해 참을성을 가지고 수행한다고 교사에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ightower *et al.*(1986)의 연구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좌절 인내와 과제 지향에 대한 유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Chung(2002)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유능성의 모든 하위 영역 즉, 또래 관계 기술, 자기 주장성 기술, 좌절 인내, 과제 지향에 대해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유능성이 높게 평가되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자기 주장성 기술에서는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에 의하면 사회적 유능성에 있어서 남아보다 여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남아가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적응하는데 필요한 능력을 더욱 발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는 결과이다.

한편, 본 연구에서 남이는 여아보다 부정적 정서를 더 많이 표출하며, 여이는 남아보다 정서 조절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서 조절 능력에 있어 성차를 보고한 선행 연구(Han, 2004; Kochanska & Coy, 2002; Lim & Lee, 2010)와 일치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학령기 남아가 여아에 비해 더 충동적인 성향이 있지만 (Cohen *et al.*, 1993),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아동의 양육에 있어 여아에 비해 남아에게 부정적인 정서를 표출하는 공격적 행동을 더 많이 허용하며, 여아에게 정서 조절

<Table 6> Multiple Regressions of Girl's Social Competence

(N=109)

Variables	Peer Social Skills	Assertive Social Skills	Frustration Tolerance	Task Orientation
	$\beta$	$\beta$	$\beta$	$\beta$
Negativity	-.23**	.14	-.53***	-.43***
Regulation	.56***	.58***	.03	.31***
Warmth	.08	.05	.05	.05
Supervision	.12	.09	.15	.03
$R^2$	.40	.37	.32	.28
F	16.94***	15.24***	11.93***	9.94***

\*  $p<.05$ , \*\*  $p<.01$ , \*\*\*  $p<.001$

을 더 강화하는 것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여겨진다 (Kochanska & Coy, 2002).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에서 온정적 양육 행동에서만 성차를 보였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을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에서 성차를 보고한 선행 연구(Fristod & Karpowitz, 1988; Kuczynski, 1984)의 연구와 일치한다. 어머니의 양육 행동은 아동 자신에 관한 개념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Gibb, 2002), 학령기 후기 남아에게도 어머니의 온정적이며 수용적인 양육 행동이 더욱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남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대한 정서 조절 능력과 어머니의 양육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별로 살펴보면 또래 관계 기술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며, 정서조절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Hwang(1999), Putallaz와 Sheppard(1992)의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며, 정서 조절 능력은 또래와의 사회적 기술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남아와 여아 모두 자기주장적 기술과 정서 조절 능력 중 조절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 모두 상황적으로 적합한 정서 표현, 공감 등의 정서 조절 능력이 학교에서 자기 주장적 유능성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남아의 경우만 자기주장적 기술과 어머니 양육 행동 중 관리·감독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행동이나 생활에 일관적으로 제한을 설정하는 것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동에 대한 계획성과 자신감에 관련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좌절 인내의 경우, 남아,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남아와 여아 모두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여 반응하는 것이 좌절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여아의 경우 좌절 인내와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이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가 여아의 행동이나 생활 습관에 일관적으로 한계를 설정해 주는 것이 여아의 스트레스적 상황에서 어려움을 수용하며 참아내는 능력과 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과제 지향의 경우,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과 유의한 부적 상관을, 조절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이는 정서적 조절이 높을수록 학교 상황에서의 요구에 적절한 행동을 한다는 선행연구(Lerner *et al.*, 2005)와 일관된 결과이다. 한편, 남아의 경우만 과제 지향 유능성이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 행동, 관리·감독 양육 행동과 정적 상관을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애정적이고 아동의 요구에 민감한 양육 행동,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할수록 남이는 학교에서 과제 지향적인 사회적 유능성을 많이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 아동이 지각하는 어머니 양육 행동이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남아와 여아의 사회적 유능성의 하위 영역에 따라 논의를 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또래 관계 기술을 살펴보면, 남이는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남아가 또래 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아도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여아의 또래 관계 기술에 대한 유능성을 높은 수준으로 보고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효율적으로 조절하고, 상황에 맞게 긍정적인 정서를 유지하고 적절히 표현하는 능력은 또래 관계 기술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정서 조절을 잘 하는 아동은 또래 유능성이 높고, 자신이 속한 집단에서 소속감을 가지며 학교 생활에 잘 적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선행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Hubbard & Coie, 1994; Park & Kang, 2005). 즉 타인의 정서와 자신의 정서를 잘 인식하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며 조절하는 능력을 가진 아동은 또래와 공격적인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지 않게 되고, 또래와 원만한 관계를 가지며, 또래 집단으로부터 더 많이 수용된다(Hubbard & Coie, 1994). 그러므로 상대를 배려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를 조절하고 적절하게 정서를 표현하는 것은 아동의 사회적 관계의 형성과 적응에 도움을 준다. 이와 같이 아동이 자신의 감정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조절할 줄 알고, 상대방의 감정, 의도 등을 이해하고 공감하여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은 사회적 관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자기 주장 기술을 살펴보면, 남아가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한다고 지각할수록, 교사는 남아가 자기 주장 기술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여아가 학교에서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자기 주장 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기능적

정서 조절이 아동의 자기 주장 기술에 대한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서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아동이 다른 사람의 정서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양한 사회적 상황에서 융통성 있게 적절한 자기 표현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은 학교 생활에서 다양한 활동이나 수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고 여겨진다. 한편,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이 아동의 자기 주장적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가졌는데, 이는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 행동이 남아가 사회적 환경의 요구에 맞는 융통성 있는 자기 주장적 행동을 하는데 기여하며, 남아가 학교 생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좌절 인내의 경우, 남아는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남아가 좌절 인내에 대한 사회적 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여아도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좌절 인내에 대한 유능성을 많이 보고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기분의 불안정,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가 아동의 좌절 인내에 관련된 유능성을 설명하는데 가장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갈등 상황에서 분노를 그대로 폭발하거나, 조절되지 않는 부정적 정서를 표출하여 갈등을 지속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반응하는 것은 좌절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즉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게 나타나고 과잉 각성된 정서를 조절할 수 없다면 자신의 욕구에만 몰두하게 되고 그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고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는 남녀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여과 없이 표출하는 대신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정서를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다양한 갈등 및 좌절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 능력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아동이 자신의 부정적 정서를 자신과 타인의 욕구 사이에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학교나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활동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제 지향 유능성의 경우, 남아가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을 많이 지각할수록, 교사는 남아의 과제 지향적 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여아는 학교에서 부정적 정서를 적게 표출할수록, 기능적 정서 조절을 많이 할수록, 교사는 여아가 과제 지향

적 유능성이 높다고 보고하였다. 남아와 여아 모두 부정적 정서성과 정서 조절이 과제 지향에 대한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서 조절 능력이 낮은 아동이 학교 상황에서의 요구에 적응이 어렵고, 학업에서 어려움을 보인다는 선행 연구와 일관적인 결과이다(Fabes et al., 2003; Lerner et al., 2005). 즉 남녀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은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 완수, 학업 수행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이 학교 현장에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업을 수행할 때와 같이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을 할 때 정서 조절 능력이 중요한 보호 요인임을 시사해 준다. 또한 남아가 지각하는 어머니의 관리·감독 양육 행동이 남아의 과제 지향을 설명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일관성 있게 제한을 정해 주고 아동이 예측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켜나가는 양육 행동이 아동이 과제를 끝까지 완결하고, 학업 성취를 하는데 있어 보호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를 통해 볼 때, 남녀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은 사회적 유능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밝혀져,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고 타인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정서 표현을 하고 공감하며 정서를 조절하는 능력은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을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아동이 사회적으로 유능하지 못하다는 것은 사회적 기대에 맞는 긍정적인 발달적 결과를 가져오게끔 환경적, 개인적 자원을 적절히 활동하지 못하는 것, 즉 주어진 상황에서 부적응적임을 의미한다(Parker & Asher, 1987). 그러므로 부모와 학교 현장에 있는 교사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증진하고 궁극적으로 아동의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고 지도해야 한다. 또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관리·감독 행동이 사회적 유능성과 관련된 변인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학령기 남아를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서 어머니가 아동의 일상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며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서울 지역의 중류층이 거주하는 1개 초등학교 4, 5,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추후에는 아동이 속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하여 다양한 지역과 계층이 포함된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

을 교사가 평정하였으므로 상호간에 공유된 변량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과 사회적 유능성을 측정할 때 아동 면접, 또래 평가, 부모 보고 등을 통해 측정할 것을 포함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은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에 유의미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이 시기 아동의 사회적 유능성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아동의 성별에 따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지닌다.

**주제어:** 사회적 유능성, 정서 조절 능력, 어머니 양육 행동

## REFERENCES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In A. D. Pick(Ed.),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7, 3-4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Belsky, J. (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1), 83-96.
- Chung, H. H. (200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Korean version of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15(2), 73-88.
- Chung, H. H., & Chung, S. H. (2007). Relationships Between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Perceived Self-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5(7), 93-103.
- Cohn, D., Paterson, C., & Christopoulos, C. (1991). The family and children's peer relations.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8, 315-346.
- Coie, J. D., Michel, M., Teti, L. O'Donnell. (1994).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regulation: A clinical perspective. In N. A. Fox(Ed.).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 Biological and behavioral considerations*(pp. 53-72). Monographs of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vol. 59, nos.2-3, serial no. 240).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Dadds, M. R., Atkinson, E., Turner, C., Blums, G. J., & Lendich, B. (1999). Family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Evidence for a cognitive-contextual model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3, 194-208.
- Dodge, K. A., McClaskey, D. L., & Feldman, E. (1985). Situational approach to the assessment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344-353.
- Fabes, R. A., Martin, C. L., Hanish, L. D., Anders, M. C., Madden-Derdich, D. A. (2003). Early school competence: The role of sex-segregated play and effortful control. *Developmental Psychology*, 39(5), 848-858.
- Fristod, M. A., & Karpowitz, D. H. (1988). Norms for the children's report of parental behavior inventory modified forms. *Psychological Report*, 62, 665-676.
- Gibb, B. E. (2002). Childhood maltreatment and negative cognitive styles: A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2, 223-246.
- Gottman, J. M., & Mettatal, G. (1986). Speculations about social and affective development: Friendship and acquaintanceship through adolescence. In J. M. Gottman & J. G. Parker(Eds). *Conversations of friends: Speculations on affective develop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air, J., Anderson, R., & Black, W. (2009). *Multivariate data analysis*. NJ: Prentice-Hall.
- Han, E. G. (2004). Children's motive and competence for emotional regulation and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2(3), 65-77.
- Han, J. A. (2008). Children's self-perceived competence and behavior problems in divorced families.

-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onsei University.
- Hartup, W. W. (1991). Having friends, making friends and keeping friends: Relationships as educational contexts. In Resources in education. (ERIC Document Reproduction Service No. Ed 345 854).
- Hightower, A. D., Work, W., Cowen, E., Lotyczewski, B., Spinell, A., Guare, J., & Rohrbeck, C. (1986). The teacher-child rating scale: A brief objective measure of elementary children's school problem behaviors and competencies. *School Psychology Review, 15*(3), 339-409.
- Hubbard, J. A., & Coie, J. D. (1994). Emotional correlates of social competence in children's peer relationships. *Merrill-Palmer Quarterly, 40*, 1-20.
- Hwang, H. J. (1999).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and emotional & behavioural problem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13*(1), 67-84.
- Katz, L. G., & McClellan, D. E. (1997). Fostering children's social competence: The teacher's role. Washington DC: NAEYC.
- Kim, J. H., & Kwon, Y. H. (2010). Effects of maternal parenting behaviors,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n gender-specific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8*(3), 1-13.
- Kochanska, G., & Coy, K. C. (2002). Child emotionality and maternal responsiveness as predictors of reunion behaviors in the strange situation: Links mediated and unmediated by separation distress. *Child Development, 73*, 228-240.
- Kopp, C. B. (1989).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 343-354.
- Kuczynski, L. (1984). Socialization goals and mother-child interaction strategies for long-term and short-term compliance.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061-1073.
- Lee, H. K., Lee, K-S., & Park, J. A. (2007). A study on attachment to mother and social competence in middle childhood. *The Journal of Play Therapy, 11*(2), 141-155.
- Lee, K. N. (2008). Individual and family variables and classroom environment that affect children's perceived competency.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7*(2), 207-221.
- Lerner, J. V., Lerner, R. M., & Zabski, S. (1985). Temperament and elementary school children's actual and rated academic performance: A test of a goodness of fit model.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26*, 125-136.
- Lim, Y. J., & Lee, E. K.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school adjustment as a function of child sex.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19*(2), 285-294.
- Maccoby, E. E., & Martin, J. A. (1983). Socialization in the context of the family: Parent-child interaction. In E. M. Hetherington (Ed.) & P. H. Mussen (Genera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 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4th ed.). Hoboken, NJ: Wiley.
- Parker, J. G., & Asher, S. R. (1987). Peer relations and later personal adjustment: "Are low-accepted children at risk?" *Psychological Bulletin, 102*, 357-389.
- Park, S. Y., & Kang, J. H. (2005). The relations between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gg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6*(1), 1-14.
- Park, Y. Y., Choi, Y. H., Park, I. J., & Kim, H. E. (2002). The relationships betwee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as perceived by children and children's self-esteem: emphasizing on the analysis based upon children's sex. *Korean Psychological Journal: Development, 15*(4), 43-60.
- Pettit, G. S., Dodge, K. A., & Brown, M. M. (1988). Early family experience, social problem solving

- patterns, and children's social competence. *Child Development*, 59, 107-120.
- Putallaz, M., & Sheppard, B. H. (1992). Conflict management and social Competence. In C. Shantz & W. W. Hartup(Eds). *Conflict in child and adolescent development*. Cambridge County Tow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2005). Introduction to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evidence, and implication. In R. P. Rohner & A. Khaleque(4th Eds.), *Handbook of the Study of Parental Acceptance and Rejection*(PP. 1-35). Storrs, CT: Rohner Research Publications.
- Saarni, C. (1997). *The development of emotional competence*. New York: Guilford Press.
- Selman, R. L., & Demorest, A. P. (1984). Observing troubled children's interpersonal negotiation strategies: Implications of and for a developmental model, *Child Development*, 55, 288-304.
- Shields, A. M., & Cicchetti, D. (1997). Emotional regulation in school-age children: The development of a new criterion Q-sort scale. *Developmental Psychology*, 33, 906-916.
- Waters, E., & Sroufe, L. A. (1983). Social competence as a developmental Construct. *Developmental Review*, 3, 79-97.

접 수 일 : 2012. 04. 23.

수정완료일 : 2012. 06. 25.

게재확정일 : 2012. 07. 13.